

기 원 문

싱그러운 바람이 온 산하를 어루만지고, 삶의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마음 또한 생동하는 꽃향기를 반갑게 맞이하고, 이웃에게 정겨움을 나누며 희망이 넘치는 사회를 발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기운은 마음 안에서도 움트기 시작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청명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며, 이러한 저마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세상은 훨씬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자답게 사는 것이 곧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여기고, 삶에서 만나는 불안을 제거하고 앞날을 열어주는 빛으로 삼고자 합니다. 소중하게 쌓아온 서원, 그리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마음으로 빛을 이루어 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자 합니다.

갖가지 그릇된 생각을 떨쳐내고, 너와 내가 분별없이 어우러져 앞길을 비추니, 본래 우리가 품고 있는 따뜻한 온기는 어둠조차 비켜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서로의 걱정을 나누어 화합할 수 있고, 주어진 일에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이웃과 사회에 보답하는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힘찬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더 밝은 사회를 위해 모두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두루 미치어 모든 사람이 함께 이익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참된 의미입니다.

자유의 터전, 시민의 광장 이곳에서 오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밝은 등불을 밝히고, 시민 모두가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실천을 발원하오니, 부디 접수하시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